

[사회]

2008 아름다운 실천, 그 이후

(4) 서해안 타르 봉사활동 펼친 광주 애육원 원생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전남 서해안이 타르로 뒤덮인 지 1년, 청정해역은 '기적'처럼 본 모습을 되찾았다.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다. 사진은 올 1월 무안군 해제면에서 방제작업을 펼친 광주 애육원 원생들.

작은 힘들이 이룬 기적 죽음의 바다 살려냈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은 재앙이 영광 앞바다를 덮쳤다.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충남 태안반도에서 영광해역까지는 170km. 조류를 타고 엄청난 타르덩어리들이 사고 20일 만에 전남 서해안을 감싸 물들이기 시작했다. 사고 소식 이후 밤잠을 못 이루던 지역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인 홍공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해 기름 1만2천547kg가 유출되자, 서해는 순식간의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사고 직후 전남의 청정해역도 오염이 예상됐었지만, 방제작업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생계도 위협당했다. 그러나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 행렬이 줄을 이었고, 검은 바다는 거짓말처럼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복구를 위해 전체 오염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모두 123만

여명. 전남해안을 찾은 자원봉사자만도 9만여명에 이른다. '기적의 주인공' 중에는 '광주에 육원' 식구 40명도 포함돼 있다. 애육원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된 18세 미만 아동들의 생활시설이다. 애육원 식구들은 지난해 이맘때 무안군 해제면 해안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던 애육원 식구들에게 무안 앞바다에서의 봉사활동은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피해 현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그 현장을 봤으면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미혜(여·19)는 기름때를 닦아냈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그랬지만, 애육원 식구들도 피해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방제작업을 직접 챙겨서 피해현장을 찾았다. 해진 옷을 모아 바위에 들

러붙어 있는 타르를 닦아내는 데 사용했고, 장화와 우비 등은 직접 구입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전남해역에서 수거한 타르만 1천560t. 이들 덕분에 타르로 뒤덮였던 영광·신안·무안 등 180km의 해안이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물론 타르 오염으로 수년 동안 양식을 하지 못하는 수산양식장 2만2천261ha를 포함해 아직 피해 지역민들의 아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남해역의 상처는 아물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애육원 윤은중 원장은 "당시 닦아 나간 표정으로 피해현장을 지켜보던 지역민들의 얼굴이 다시 웃음이 돌아오고 있다니 자원봉사자들의 한 명으로써 너무 뿌듯하다"며 "애육원 식구들에게도 그랬지만, 피해지역은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체험 교훈장이었다"고 말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내년 4월 양형기준제 시행

2009년에는 살인·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기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지원·부천지원·성남지원·안산지원·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 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다. <속도내는 민사재판>=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처도록 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법원-로스쿨 실무협약>=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국선변호사 확대>=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지원·부천지원·성남지원·안산지원·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 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다. <속도내는 민사재판>=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처도록 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법원-로스쿨 실무협약>=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건설사 법인카드 받아 1억원 사용 현직 부장검사 첫 해임 처분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첫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사용한 부산고검 소속 김민재 부장검사(연수원 15기)를 위선손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법원법정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 해임처분을 받는다. 김부장은 법원법정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협뉴스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따라 김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제1회 로스쿨 프랑 대주중 정총회사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검사가 2005년 6월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 검사는 법인카드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연협뉴스

아파트내 영어마을 만들기 쉬워져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안에 영어마을을 만들기가 쉬워지고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저에너지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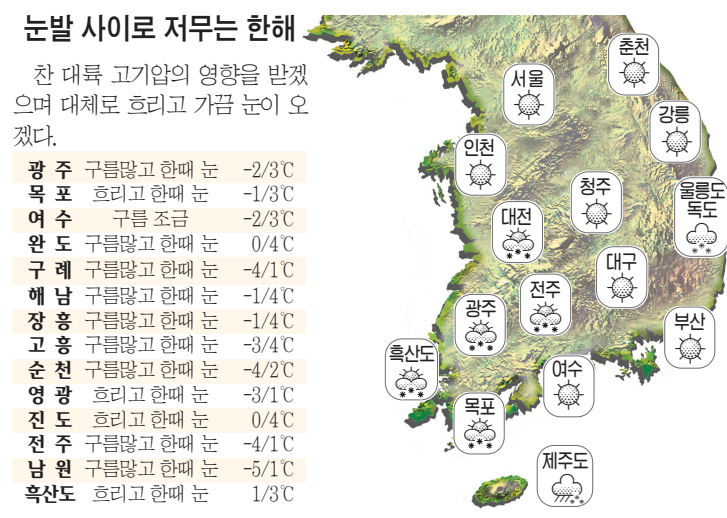


Table with 5 columns: 바다 (Sea), 풍향 (Wind), 파고 (Wave), 밀물 (High Tide), 썰물 (Low Tide). Rows include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and 7 sea areas with wind direction, wave height, and tide times.

광주·전남 강추위 새해 첫날 더 춥다

세밀 한파가 찾아왔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해 첫날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월 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다소 많은 구름이 끼겠지만 햇빛이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광주·전남 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4cm.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4도. /기상청기자 khk@kwangju.co.kr

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추진

교사와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외에 새로 의료기사와 아동·청소년 상담공무원 그밖에 각종 가족 지원 단체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통합 조정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어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협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굿모닝365 Goodmorning365. Advertisement for a health supplement. Features a list of ingredients like ginseng, ginseng, and various herbs. Includes contact info: (주)굿모닝365 1 광주·전남지사 062-267-7753.